

《대북적대행위를 멈추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층의 반전, 반윤석열투쟁 활발히 전개 —

최근 남조선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반전, 반윤석열투쟁에 종교계가 적극 합세해나가고있다.

올해 상반기기간에만도 《그리스도교녀성총연합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거의 매달 840여개의 로동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정부)는 대북적대행위를 멈추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을 평화의 길을 열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반공화국전쟁연습을 중단할것을 강하게 요구해나갔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평화대회 등을 결의한데 따라 100여개의 각계층 단체들과 《평화통일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투쟁기운을 고조시켰다.

종교단체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역도의 퇴진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성공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윤석열역도가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이라는것을 발표하고 치욕스러운 일본

행각에 나섰것과 관련하여 각지역의 1530여개 시민사회단체, 9600여명의 각계 인사들과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국기사》 등을 진행하며 각계각층이 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역도의 일본행각기간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의 무효화와 남조선일본(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미일남조선 3자군사협력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매일같이 벌이며 역적패당을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4대종단소속 단체들도 각 지역에서 《시국기사》, 《시국기도회》, 《시국선언》 발표기자회견 등을 열고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웨치며 역도퇴진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종교단체들이(정부)를 비판하는 정치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종교적리념에서 벗어나 정치적립장을 발표하고있다》고 하면서 종교단체들의 반전, 반윤석열투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각계층의 반윤석열투쟁에 중

요단체들까지 적극 합세해나서며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이고있는 사실은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환멸과 분노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선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거세게 폭발하고있으며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사회정의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남조선의 전반민심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여 지난 3월부터 15일까지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도 그것을

시사하고있다.

이 기간 《민주로총》은 《로동, 민생, 민주, 평화과제 윤석열(정권) 퇴진 민주로총 전국로동자대회》, 《윤석열퇴진 초불집회》를 벌였으며 총파업 마지막날인 15일에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망라된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정권) 퇴진 7.15범국민대회》를 진행하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로동조합》과 《전국건설로동조합》도 당국의 로동조합탄압중단과 최저임금인상, 로동환경개선 등을

요구하여 시위와 집회를 전개하며 반《정부》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켰다.

2주일간에 걸친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연 35만명이 떨쳐나 결의대회, 거리행진, 초불문화제, 서명운동 등 150여차례의 각종 투쟁을 벌였으며 여기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세하였다는것은 윤석열역도의 검찰과소통치를 심판하려는 민심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일본의 조선강점을 도와준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는 길에서 서로 공모결탁하여왔다.

이를 증명해주는 실례의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에 조작된 《가쓰라-타프트협정》이다.

1905년 일본에 기여한 미 육군장관 타프트는 당시 일본수상이었던 가쓰라와 비밀 회담을 진행하고 7월 29일 이른바 《가쓰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서는 일제가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인정하며 그 대가로 미제는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협력하고 조선에 대한 《보호통치》를 인정한다는것, 미제가 영일동맹에 가담하며 극동침략에서 미, 일, 영제국주의가 공동행동을 취할것 등이 지적되었다. 이 협정은

국비에 붙여져다가 1925년에 세상에 폭로되었다.

《가쓰라-타프트협정》 체결로 조선강점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담보받은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40여년간에 걸치는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왔다.

이처럼 지난 20세기초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침략과 약탈에 이따가 난 미일 두 제국주의의 공모결탁의 산물로서 그 죄악은 두고두고 용서받을수 없는것이다.

미일사이의 범죄적인 공모결탁행위는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일제배후 미국이 이전 일제관료들과 대본영의 작전장교들을 전범자로 처벌할 대신 《력사연구협회》와 같은 비밀기관 등을 조직하여 국

동침략전쟁계획과 《북벌전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전쟁을 도발한 사실, 조선전쟁시기 일본군의 전 령도를 미군의 출격 및 보급, 수리, 작전기지로 만들고 약탈은 일본의 세균전진행자를 미군의 세균전진행에 끌어들이는 사실 등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후 미일반동들의 침략적인 공모결탁행위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대조선침략과 세계제패야망실현의 돌격대로써먹기 위해 해외팽창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을 로골적인 해외침략의 길로 부추기고있다.

일본은 《전쟁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십나라들의 《평화헌법》개정내용을 지지하고 일본과의 첨단무장장비개발과 수출에 생수들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반공화국(3각공조)를 떠들며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을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부추기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빈번히 미국, 남조선호전파들과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지어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모의하는 《핵협의그룹》에 가담하려 하고있는 사실은 미일사이의 공모결탁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준다.

역사와 현실은 전 조선을 라고있으려는 미일반동들과 그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매국역적무리가 있는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언제 가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사회적공황을 일으키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6월말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30대녀성이 2018년과 2019년에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죽이고 시체를 수년간이나 방동기에 넣어둔 끔찍한 살해사건(인명 《그림자아기 사건》)이 드러나 내외를 경악케 하였다.

남조선에서 현재 수사중인 아이살해사건은 근 900건이나 되며 1000여명의 아이들이 행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사람들을 무력하고 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도 그칠새없고 일어나고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20대녀성의 뒤를 쫓아가 집문앞에서 그의 머리를 발로 차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강간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얼마전에는 경기도에서 한 피해자가 20대녀성을 아파트승강기에서 다짜고짜 폭행

하고 강간하려다가 체포되는 《제2의 부산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

그러나 하면 지난해 11월 원주시에서는 20대남성이 40대와 50대 남녀 2명이 자기결혼을 지나가면서 어깨를 다쳤다 하여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기절시켰으며 올해 4월에 부산에서 50대남성이 여자위생실에 들어가는 60대녀성을 따라가 무력하고 폭행하여 갈비뼈와 코뼈를 꺾어놓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6월말에는 TV를 통해 범죄물영화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살인중동을 느낀 20대녀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래 녀성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 내다버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 파문을 일으켰다.

남조선에서 몹시러치는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있는 것은 악육강식의 범죄적 지배하는 썩어빠진 사회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조선군대를 강제해산시킨 일제의 죄악

8월 1일은 일제가 지금으로부터 116년전에 조선봉건국가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날이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권을 확립한 일제는 우리 겨레의 반일감정이 높아가는데 불안을 느끼고 조선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조선강점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가 들고나온것이 바로 《군대정리》였으며 이를 친일매국역적들에게 내려먹인자가 조선침략의 원수 이보 히로부미(이등박문)였다.

1907년 7월 29일 이등박문은 《국비준보 105호》에서 조선군대를 전부 해산시킬데 대한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그것이 해산집행전에 투설될 위험을 고려하여 일제 비밀을 불일것을 지시하였다.

7월 31일 밤에는 조선군대장관을 내용으로 한 조선황제의 《조칙》을 날조하여 그것을 황제의 명의로 선포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의 우두머리였던 하세가와를 내세워

조선군대해산장자를 8월 1일로 정하고 1차로 서울에 있는 시위보병 5개 대대, 기병대, 포병대, 교성대 8개, 2차로 지방에 있는 진위대 8개 대대를, 3차로 러단사령부, 연성학교, 치중대, 흥농수비대, 군악대 등을 해산시킬것을 계획하였다.

1907년 8월 1일 서울시내는 일제침략자들의 삼엄한 경계밑에 들 어갔으며 하세가와는 8시 서울주둔 조선군대의 부대장 및 구분대장회의를 소집하고 부대해산을 통고하였다.

그리고 일제침략군으로 하여금 무기교를 점령케 하고 조선군대장교들로 하여금 도수훈련을 한 다음 병사들을 피여 해산식장인 훈련원으로 무장없이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훈련원에 빈손으로 모인 조선군대는 절반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이미 원수들의 간계를 간파하고 해산식장에 가지 않았다.

이후 보병 제1대대 1대대장이었던 박성환의 항거자결을 계기로 군인들의 반일감정은 무장폭동으로

이어졌으며 그들은 치열한 시가전에서 일제침략군 100여명을 살상하고 적들의 포위를 뚫고나와 반일의병대에 합류하였다.

이날 일제의 간계에 넘어가 항쟁대렬에 참가하지 못하였던 애국적 군인들도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일제가 주는 더러운 《은사금》을 쥐여부리며 반항하였으나 맨주먹으로 일제아수들의 삼엄한 포위망속에서 갈취유체 해산당하고말았다.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에 일제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진위대를 전반적으로 강제해산시켰다.

이렇게 강도적방법으로 조선군대를 완전히무장해제시키고 조선의 국토를 병탄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잔악무도한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사람은 일본병에 복종한다가 아니라면 죽어야 한다》고 떠들며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육하였는가 하면 강제행형, 유괴, 람치의 방법으로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죽음의 전경터와 공사장들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을

가까와오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저들의 치명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오려 저들의 침략범죄를 미화분식하면서 군사대국화와 제정체통에 광분하고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침략적본성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군국주의독서는 독이발을 드러내고 허를 날름거리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십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는 어리석은짓이다.

장영범



일제에 의하여 강제해산당한 조선군대